

중소벤처기업의 R&D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조역량, 비즈니스모델 이해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R&D Capability & Performance:
Focusing the Moderating Role of Manufacturing Capability &
Employee's Understanding the Biz-model)

김 효 정¹⁾, 최 원 용^{2)*}
(Hyojung Kim and Wonyong Choi)

요 약 본 연구는 자원기반론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R&D 역량, 제조역량, 비즈니스모델 이해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특히, 제조역량과 비즈니스모델 이해도가 R&D 역량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분석하였다. 2019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1103개의 중소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횡단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벤처기업의 R&D 역량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고, 제조역량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역량과 제조역량의 상호작용은 성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즈니스모델 이해도는 R&D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양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 벤처기업의 R&D 역량은 조직원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핵심주제어: 중소기업, R&D 역량, 제조역량, 비즈니스모델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R&D capability, manufacturing capability, understanding of the Biz model on performance of Korean start-up companies, especially the moderating effects of manufacturing capability and understanding of the Biz model. We analysis 1103 Korean start-up companies based on "2019 Survey of Korea Venture Firms" As a result, the manufacturing capability and employee's unnderstanding the Biz-model have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mpany performance. Especially, we found that 'employee's unnderstanding the Biz-model'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R&D capability & performance positively.

Keywords: Korean start-ups, R&D capability, manufacturing capability, Employee's Understanding the Biz-model

* Corresponding Author: wychoi@smu.ac.kr

+ 본 논문은 2020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Manuscript received January 17, 2022 / revised January

28, 2022 / accepted February 04, 2022

1)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제1저자
2)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신저자

1. 서론

벤처의 성과달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존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의 성과도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벤처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주로 Born Global 관련 벤처 기업의 국제화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벤처를 성과와 연계한 벤처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Lee & Song, 2019; Youn & Kim, 2009, Knight and Cavusgil, 1996; Kuemmerle, 2005; Oviatt and McDougall, 1994, 1995; Zahra, Ireland, and Hitt, 2000; Jones, Coviello, and Tang, 2011). 또한 벤처기업의 성과달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성 역시 벤처기업과의 성공 사례 및 실무적인 정책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성과달성에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기술력을 강조하고 있으며(Lee, Lee, and Penning, 2001; Zahra, Matherne, and Carleton, 2003; Autio, Sapienza, and Almeida, 2000; Dimitratos and Plakoyiannaki, 2003; Jones and Macpherson, 2006; Song, Wang, and Parry, 2009; Knight and Cavusgil, 2004), 히든 챔피언 관련 연구 또는 WC300(월드챔피언300)과 같은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R&D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는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진출에 있어서 마케팅 역량의 부족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지원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Venture Business Association,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기존 벤처기업 대상의 정책 수립에 참조한 인터뷰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의 성과도출 요인을 기존의 자원준거관점을 기초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자원준거관점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이 경쟁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쟁우위로 연결된다(Wernerfelt, 1984; Barney, 1991; Mahoney & Pandian, 1992). 따라

서 자원준거관점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로 연결될 수 있는 내부역량을 세분화하여 어떤 요소가 성과도출에 영향을 주는지 찾고자 하며, 특히 벤처의 기술력 외의 제조역량 및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역량인 기술력 외에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제조역량과 조직원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기술력과 결합 되었을 때 성과로 연결되는지를 찾고자 한다. 제조역량과 비즈니스 모델 관련 연구는 기존의 벤처 연구에서는 성과변수로 제한적이나, 기존 연구에서 기업의 대표적인 역량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한국 벤처의 성공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Choi, 2015; Han, 2019). 따라서 기존의 자원준거이론과 국제신생벤처기업(INV)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벤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독특한 성과도출의 요인의 있는지를 찾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는 중소기업부가 벤처기업협회에 의뢰하여 벤처기업의 일반 및 경영현황, 활동내용 등에 대한 조사로,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설문조사 자료이다. 조사대상은 2018년 12월 말 벤처확인기업 36,065개였으며,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사용된 유효표본은 2052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 손실이 없는 1103개를 벤처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벤처기업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 결과가 연구의 대상이 되니,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적합한 샘플이라고 판단된다.

분석결과 벤처기업의 R&D 역량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고, 제조역량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D 역량과 제조역량의 상호작용은 성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역량 자체만이 독립적으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

석 결과는 한국 벤처기업에 있어서는 R&D 자체만으로 성과도출에 연결되기 어려우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함을 설명한다. 또한 R&D 역량외에도 벤처기업 수준에서 강력한 자원인 제조역량은 그 자체로 벤처기업의 성과 도출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서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 한국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도출 요인을 밝히고자 본 연구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의 성과도출 요인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가 벤처기업의 기술력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기술관련 독점적 우위로 창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해도 다른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도출이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자원준거이론을 기반으로 벤처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R&D 역량 뿐 아니라 이에 연계되는 내부역량을 세분화하여 육성하고, 성과도출로 연결하는 향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터뷰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정책입안자에게 벤처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정책 수립에 도움으로 줄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기존 연구 리뷰를 통해 R&D 역량과 제조역량, 비즈니스 모델 이해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가설을 수립한다. 이후,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실증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을 돌아보는 것으로 연구를 끝맺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및 가설 도출

2.1 R&D 역량과 기업성과

Gopalakrishnan & Damanpour(1997)는 기업

의 혁신이 R&D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ouitaris(2002)는 R&D 활동이 혁신을 창출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Sun & Kim, 2019). 즉, 연구개발활동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자원과 역량을 업그레이드 함과 동시에, 새로운 자원과 역량을 구축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 또는 급진적 혁신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Kim & Kim, 2017; Kim & Kim, 2009).

연구개발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역량은 기업의 장기적 생존과 경쟁우위 확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받아들여진다(Shin & Im, 2014). Kor(2006)은 자신의 연구에서 연구개발역량이 기업의 성장 및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으며, Zahra와 George(2002)는 연구개발역량은 동태적 역량으로 기업이 경쟁우위를 획득,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연구개발역량은 연구개발부서의 R&D 역량, 흡수역량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R&D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은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한 주요 요인이 되며(Cooper, 1979), 연구개발역량은 신제품 개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연구되어 왔다(Dutta, Narasimhan, & Rajiv, 1999). 이를 통해 연구개발역량은 신제품 개발 성과 향상과 경쟁우위 강화를 위한 역량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발 역량은 통상적으로 높은 연구개발투자의 불확실성 수준을 낮출 수 있으며, 연구개발의 범위를 넓혀줌으로써(Kang, Beak, & Lee, 2017), 자원 보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다. Yang와 Lee(2020)은 중소기업의 R&D 역량이 국제화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1. 중소벤처기업의 R&D 역량은 기업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2 제조역량과 기업성과

제조역량은 수요에 대응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을 개선하며,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데 필요한 역량(Seo, Luo, Lee, 2008; Kim, 2008)으로 알려져 있다. 제조역량은 인력, 관리기술능력, 품질관리능력, 엔지니어링 능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Hayes & Wheelwright, 1984), Schonberger(1990)는 제조역량이 설계, 운영, 관리, 품질개선, 공정관리, 운영 정보관리, 생산 용량 관리, 촉진과 마케팅, 인적지원 등으로 제조역량을 세분화 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제조비용, 품질, 신제품출시속도, 납품 신뢰성 또한 제조역량에 포함될 수 있다(Ferdows & de Meyer, 1990). 즉, 제조역량이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역량이 아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높은 품질과 생산성을 기반으로 의도한 생산량을 의도한 시기에 적절히 제조할 수 있는 역량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은 투자 가능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기 쉬우며, 또한 시장규모도 작아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하기 쉽다. 이러한 경쟁열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제조역량이다. 제조역량은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품질 수준을 높임으로써 기업성과를 공헌할 수 있다(Seo, Luo, Lee, 2008). 또한, 연구개발단계를 마친 신제품을 시장의 요구에 맞게 생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조역량이 필수적이다. 결국, 중소벤처기업의 비전, 목표, 전략 실현에 있어서, 자신의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조역량의 차이는 결국 기업의 성과 차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2. 중소벤처기업의 제조역량은 경영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3 비즈니스 모델 이해도와 기업성과

비즈니스 모델은 경영의 핵심 체계를 담고 있으며(Morris, Schindehutte, & Allen, 2005), 이를 통해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ewart와 Zhao (2000)는 기업이 매출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지속하는 방법에 대한 것(statement)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Slywotzky (1997)는 좀 더 자세하게 기업이 고객을 선택하고, 제품을 정의하고 차별화하며, 원자재 공급부터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과정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즉, 비즈니스 모델이란 기업의 가치사슬 상의 모든 활동이 포함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존하는 방법이다.

위와 같이,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경쟁력 구축을 위한 사업 전반의 과정을 담고 있고, 이를 적절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는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기 때문에(Timmers, 1998), 이를 이해하는 것은 기업의 목표, 가치창출 과정, 목표시장 등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는 목표지향적, 가치지향적, 고객지향적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의 긍정적 성과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3. 조직구성원의 비즈니스모델 이해도는 경영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4 제조역량의 조절효과

Ferdows와 Meyer(1990)는 제조역량을 단위당 생산비용, 적정품질, 신제품도입속도, 납품 신뢰성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요소가 제조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Richardson과

Gordon(1980)은 높은 생산량과 생산성, 낮은 비용, 높은 수준의 품질, 신뢰할 수 있는 납품, 생산의 유연성, 혁신성이 높은 제조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높은 제조역량은 빠른 신제품의 도입, 적정 품질 확보, 높은 생산성 확보를 통해, 기업이 자신의 기술력이나 R&D 역량을 적절히 제품에 반영할 수 있게 하며, 특히, 기업이 지닌 기술력을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연구개발역량의 실현은 제조역량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 R&D 활동과 생산활동에 대한 연계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Nam & Park, 2003). 연구개발역량은 많은 연구결과와 같이 신제품 개발 및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을 주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역량만으로는 기업의 가치창출을 담보하진 못한다. 초기 아이디어의 기술적, 상업적 실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익창출의 가능성이 타진되어야 한다(Hong & Yong, 1994). 앞서 언급한 제조역량의 신제품도입속도, 생산비용, 품질, 납품신뢰성 등은 기업의 연구개발역량으로 도출된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재무적, 인적 자원 등의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제조역량의 차이가 연구개발부서에서 창출된 지식자원의 상품화 성공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4. 중소벤처기업의 제조역량은 R&D 역량과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양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2.5 비즈니스이해도의 조절효과

O'Regan과 Ghobadian(2005)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역량을 혁신성과로 도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문화 및 관리체계 등의 조직상황요인에 대한 낮은 고려에서 찾았다. 또한, 조직 내 지식의 공유 및 이전은

기업의 신제품 개발이나 학습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기업의 전반적 성과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지식의 공유 및 이전은 기능조직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Luo, Slotegraaf, & Pan, 2006), 조직원들의 기업 목표 및 가치창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협력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R&D 역량이 조직의 여러 부문과 연계될 때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Timmer(1998)가 주장한 바와 같이,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직원들의 이해는 기업의 아이디어 창출 단계부터 실행,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진술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역량은 제조역량, 마케팅역량, 인적자원관리 역량과 같은 다양한 역량과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창출한다. 때문에, 기업의 목표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 기업의 활동 범위, 기업의 가치창출 프로세스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연구개발 역량이 타 역량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5. 조직구성원의 비즈니스모델 이해도는 R&D 역량과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양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Fig. 1은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서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협회에 의뢰하여 벤처기업의 일반 및 경영현황, 활동내용 등에 대한 조사로,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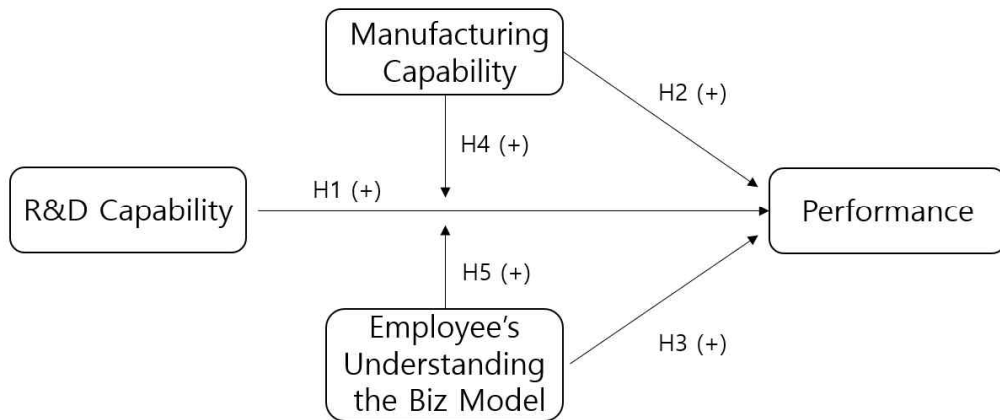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설문조사 자료이다. 조사대상은 2018년 12월 말 벤처확인기업 36,065개였으며, 벤처기업정밀 실태조사에 사용된 유효표본은 2052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 손실이 없는 1103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성과인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의 전년도 대비 매출액증가를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매출의 증가는 대표적인 성과변수로 사용되어 왔다(He & Wong, 2004; Auh & Menguc, 2005). 본 논문에서는 전년도 대비 매출 증가금액에 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다(Baum, Locke & Smith, 2001).

독립변수: 기업의 R&D 역량은 기업의 전체 국내외산업재산권 수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국내산업재산권은 등록보유 중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해외산업재산권은 해외특허 및 국제규격증을 포함한다. 또한 출원 중인 국내 산업재산권과 해외 산업재산권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특허 수 등은 기존 연구에

서 기업의 R&D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었다(Benner & Tushman, 2002; Nerkar & Shane, 2007). 제조 역량은 벤처경영실태조사에서 제조역량을 경쟁사와 비교시 그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항목을 사용하였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는 벤처경영실태조사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에 어느 정도나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대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상호작용 변수는 R&D 역량 * 제조역량, R&D 역량 * BM 역량으로 구성하였으며,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호작용항을 만들 때 평균센터링을 통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 벤처기업의 성과도출 관련 선행연구를 따라, 본 연구에서는 6개의 통제변수를 사용하였다. 종업원 수. 종업원수는 기업규모와 연계되는 변수로 기업성과와의 높은 상관관계로 성과측정이 연계될 때 빈번히 사용되는 통제변수이다(Baum, Locke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정규직 종업원 수를 사용하였다. 기업나이. 기업의 존속연수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인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연령을 통제하였다(Zhang, Li, Hitt and Cui, 2007). 또한 산업별 차이가 매출액 증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Variables	Mean	S.D.	1	2	3	4	5	6	7	8	9
1 매출액 증가(log)	6.788	1.816	1								
2 Employees	55.182	95.325	0.35*	1							
3 Corporate Age	12.376	7.610	0.21*	0.24*	1						
4 4 th industry	1.532	0.499	-0.03	-0.02	0.04	1					
5 Gov. R&D funding	1.802	0.398	0.09*	0.05*	0.03	0.06*	1				
6 unique Tech.	1.850	0.357	0.07*	0.01	0.06*	0.14*	0.16*	1			
7 Marketing rientation	3.446	0.691	-0.05	-0.02	-0.08*	-0.14*	-0.05*	-0.23*	1		
8 R&D Capa.	13.419	41.143	0.09*	0.16*	0.11*	-0.07*	-0.09*	-0.17*	0.03	1	
9 Manufacturing Capa	3.597	0.733	0.11*	0.06*	0.05*	-0.06*	-0.06*	-0.11*	0.29*	0.11*	1
10 Understanding Biz Model	3.394	0.683	0.03	0.02	-0.06*	-0.10*	-0.08*	-0.09*	0.41*	0.03	0.30*

+ p<0.1, * p<0.05, ** p<0.01

Table 2 Linear Regression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Model 7
Employees	0.005*** (-0.002)	0.00530*** (-0.00199)	0.00532*** (-0.00199)	0.00541*** (-0.00199)	0.00521*** (-0.00198)	0.00522*** (-0.00199)	0.00528*** (-0.00198)
Corporate Age	0.033*** (-0.008)	0.0317*** (-0.00779)	0.0315*** (-0.00794)	0.0336*** (-0.00801)	0.0315*** (-0.00775)	0.0306*** (-0.00774)	0.0327*** (-0.00776)
4 th industry	-0.138 (-0.103)	-0.137 (-0.103)	-0.136 (-0.102)	-0.125 (-0.103)	-0.127 (-0.103)	-0.128 (-0.103)	-0.133 (-0.103)
Gov.R&Dfunding	0.306** (-0.125)	0.323** (-0.126)	0.333*** (-0.124)	0.318** (-0.125)	0.354*** (-0.126)	0.358*** (-0.127)	0.349*** (-0.125)
unique Tech.	0.231 (-0.152)	0.281* (-0.157)	0.272* (-0.15)	0.224 (-0.151)	0.305** (-0.155)	0.319** (-0.155)	0.271* (-0.155)
Marketing Orientation	-0.0748 (-0.0727)	-0.0783 (-0.0726)	-0.169** (-0.0774)	-0.146* (-0.0777)	-0.217*** (-0.0811)	-0.167** (-0.0778)	-0.154** (-0.078)
R&D Capa.		0.00226 (-0.00201)			0.0019 (-0.00198)	0.00311 (-0.00215)	0.00321** (-0.00155)
Manufacturing Capa.			0.297*** (-0.0725)		0.270*** (-0.0745)	0.285*** (-0.0727)	
Understanding Biz Model				0.184** (-0.076)	0.138* (-0.0784)		0.189** (-0.0761)
R&D*MFC						-0.00209 (-0.00158)	
R&D*BM							0.00675*** (-0.00236)
Constant	5.589*** (-0.481)	5.468*** (-0.495)	4.739*** (-0.527)	5.174*** (-0.516)	4.404*** (-0.555)	4.613*** (-0.54)	5.026*** (-0.528)
R-squared	0.148	0.15	0.161	0.152	0.164	0.163	0.159

n=1103, *** p<0.01 , **p<0.05, *p<0.1; Robust Standard Deviations are in the Parenthesis

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업의 4차 산업여부를 물어본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R&D 중심의 벤처기업의 성과를 보고자 하는 논문으로 기업의 R&D 관련 지식기반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 지원 경험 유무 및 세계 유일의 기술

보유 여부를 통제하고자 하였다(Lee & Song, 2019). 해당 변수는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에게 직접 질문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또한 기업의 마케팅 차별화 수준에 대한 의지를 통제하여 각 기업의 현재 유지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 매출액 성장에 미치는 결과를

통제하였다(Sandberg & Hofer, 1987, 윤종록, 김형철, 2009)). 마케팅 차별화 수준의 의지는 설문항에서 제품 브랜드, 디자인 등의 차별화 전략의 이해정도에 대한 질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Table 1은 변수간의 기초통계량과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매출액증가와 유의한 상관관계는 종업원 수, 기업나이, R&D 지원경험여부, 세계유일기술보유여부, R&D 역량, 제조역량의 변수에서 나타났다. 특정 변수의 높은 상관관계로 다중공선성을 변량증폭요인(Variance Inflation Fator:VIF)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큰 값이 1.31로, 다중공선성 판단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Table 2는 회귀분석 결과이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하는 모형 1에서, 통제변수들이 기업의 매출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종업원 수, 기업나이, R&D 지원 경험여부가 매출증가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가설 1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벤처기업의 R&D 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가설 1은 지지되지 못했다. 즉 R&D 역량 자체만으로 기업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2에 대한 검증은 벤처기업의 제조역량과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으로 제조역량 자체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p < .01$). 가설 3은 벤처기업의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과 기업의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은 지지되었다($p < .05$). 모형 5는 각 독립변수에 대해 Full model로서 독립변수들을 독립적으로 돌린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모형 6과 모형 7은 조절효과에 대한 검

증이다. 모형 6은 벤처기업의 R&D 역량과 제조역량의 결합이 기업의 성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설 4는 지지되지 못했다. 기업의 R&D 역량보다는 제조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는 내용으로 해당 내용은 토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가설 5는 벤처기업의 R&D 역량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이해도의 조절효과가 이 기업의 성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지지되었다($p < .01$). 가설 5의 결과는 R&D 자체 보다는 성과 도출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5. 결론 및 토의

5.1 연구 결론 및 의의

본 연구는 벤처의 지속적인 성과도출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벤처기업들의 성과도출 요인을 찾고자 하는 목적 아래,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R&D 역량, 제조 역량, 비즈니스 모델에 이해도가 벤처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 손실이 없는 1103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벤처기업의 R&D 역량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다. 이는 벤처기업의 가지고 있는 특허 중심의 R&D 역량 자체만으로 성과도출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모형 1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적으로 정부의 R&D 지원 등으로 지원금으로 받을 경우에만 성과로 연결되는 점은 기업의 특허 등의 보유가 상업적으로 연결되기에는 역부족임을 보여주고 있다. 벤처기업은 최근에 등장한 고유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벤처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동인이

다(Autio, Sapienza, and Almeida, 2000). 기존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으로는 기술적 역량을 설명하며, 기술적 우위는 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창출을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게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Lee, Lee, and Penning, 2001; Zahra, Matherne, and Carleton, 2003; Autio, Sapienza, and Almeida, 2000; Dimitratos and Plakoyiannaki, 2003; Jones and Macpherson, 2006; Song, Wang, and Parry, 2009; Knight and Cavusgil, 2004). 그러나 한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는 R&D 자체만으로 기업의 성과에 연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벤처기업의 제조역량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준거이론에 기초하여, 벤처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내부 역량 중 기업성과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Grant, 1991; Barney, 1991; 윤종록, 김형철, 2009). 특히 기술력만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성과창출에 있어서 제조역량의 보유여부는 기업이 좀 더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역량임을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로 벤처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이해도는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단기 성과 도출에 있어서는 시장창출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정확하게 무엇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경쟁사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우위가 기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의 시장정보 수집능력이 기업의 독점적 우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Lee, Lee, and Penning, 2001; Zahra, Matherne, and Carleton, 2003; Autio, Sapienza, and Almeida, 2000).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기업의 R&D 역량을 기반으로 제조역량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R&D 역량과 제조역량의 상호작용은 성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역량

자체만이 독립적으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환경에 좀 더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벼운 조직이 제조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기술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경쟁우위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R&D 역량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력과 더불어 전략, 마케팅 등의 상업적인 역량을 갖출 때, 기업의 성과도출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벤처기업의 내부역량 중 기업의 우위로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량의 필요성 역시 제시하고 있다. 즉 기업의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기술력 뿐만이 아니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5.2 연구 시사점

자원준거관점에서의 벤처기업의 내부역량을 세분화하여 어떤 요소가 성과도출에 연결이 되는지를 찾고자 한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내부역량을 세분화하여 벤처기업에서 강조되는 R&D 역량이 실질적으로 성과로 연결되는지, 또는 R&D 역량과 더불어 제조역량과 비즈니스 모델로 비롯되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점은 벤처기업 관련 연구에 있어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기술력만이 중요하다는 실증연구를 제시했으며, R&D 역량 역시 정부지원금 등으로 대표되는 R&D 투자비용을 중심으로 실증연구가 진행되었다(이영훈, 송유진, 201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이 기술에 대한 우위로 창업을 해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기업의 역량이라고 제시되는 제조역량이 또는 기술력과 결합된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된다는 점을 실증연구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제조역량에서의 우위가 요구된다는 점은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

되어 기업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할 수 있는 생산기반에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벤처의 성과도출을 위한 내부역량의 구체화 작업은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벤처기업 정밀실태보고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벤처기업의 성과 동인을 찾을 수 있는 연구로 확장가능하다. 특히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의 R&D 역량과 기타 내부역량이 어떻게 축적되는지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벤처기업들에게 실무적인 지원과 연관된 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정책지원금으로 인한 R&D 역량 자체 만으로는 기업의 성과도출에 무리가 있으며,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된다는 점, 생산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은 정부의 벤처기업 관련 정책지원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의 성과도출이 R&D 역량과 제조역량, 종업원의 비즈니스 모델 이해도의 결합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은 벤처기업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는 지식자원 확보를 위한 활동과 동시에, 종업원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수 있는 워크숍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조 시설 및 역량을 갖추기 위한 시도를 벤처기업 스스로 지속해야 함을 의미한다.

5.3 연구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역량 변수를 측정하는데 기업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했다는 점은 추후 특허 등의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 정교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벤처기업정밀 실태보고서의 데이터 한계로, 경영성과 데이터가 전년도 대비 매출의 증가로 작성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좀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역량

구축 이후 몇 년 동안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패널 데이터의 구축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의 성과도출 관련 사례 연구와 연계하여, 성과도출에 관한 변수를 찾고, 이를 검증하는 등의 벤처기업관련 좀 더 풍부한 연구로 벤처기업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utio, E., Sapienza, H.J. and Almeida, J. G. (2000). Effects of Age at Entry, Knowledge Intensity, and Imitability on International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3(5), pp. 909-924.
- Auh, S., & Menguc, B. (2005). Balancing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The moderating role of competitive intensit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12), pp. 1652-1661.
- Barney, J. B.(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pp. 99-121.
- Baum, J., Locke, E., & Smith, K. (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pp. 292-303.
- Benner, M. J. and M. Tushman (2002). "Process Manage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 Longitudinal Study of the Photography and Paint Industri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7(4), pp. 676-706.
- Choi J. Y. (2015). Relationship Analysis among Entrepreneurship, Innovation Capability, External Cooper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for Venture Compani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pp. 219-231
- Cooper, R. G.(1979). The Dimensions of Industrial New Product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Marketing*, 43(3), 93-103

- Dimitratos, P. and Playkoyiannaki, E. (2003). Theoretical Foundations of an International Entrepreneurial Culture,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Vol. 1(2), pp. 187-215.
- Dutta, S., Narasimhan, O., and Rajiv, S.(1999). Success in High-technology Market : Is Marketing Capability Critical?, *Marketing Science*, 18(4), pp. 547-568
- Ferdows, K. and A. de Meyer (1990). Lasting Improvements in Manufacturing Performance: in Search of a New Theory,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Vol. 9, No. 2, pp. 168-184.
- Grant, R. M. (1991). The Resource-Based Theory of Competitive Advantage : Implications for Strategy Formula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33(3), pp. 114-135
- Gopalakrishnan, S. & Damanpour, F. (1997). A Review of Innovation Research in Economics, Sociology and Technology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25(1), pp. 15-28.
- Han K. D. (2019).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Venture Business Founders and Management Strategy on Business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6), pp. 29-43.
- Hayes, R. H. and S. C. Wheelwright (1984). *Restoring Our Competitive Edge: Competing Through Manufacturing*, Wiley, NY.
- He, Z. L., & Wong, P. K. (2004). Exploration vs. Exploitation: An Empirical Test of the Ambidexterity Hypothesis, *Organization Science*, 15(4), pp. 481-494.
- Hong J. W., & Yong S. J.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New Product Idea Sources and the Rate of Success of NEW Product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echnology Management & Economics*, 2, pp. 219-241.
- Jones, M. V., Coviello, N., and Tang, Y. K. (2011).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Research (1989-2009): A Domain Ontology and Thematic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4), pp. 632-659.
- Jones, O. and Macpherson, A. (2006). "Inter-organizational Learning and Strategic Renewal in SMEs: Extending the 4I Framework," *Long Range Planning*, 39(2), pp. 155-175.
- Kang, T., C. Baek and J. D. Lee (2017). The Persistency and Volatility of the firm R&D Investment: Revisited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ical Capability, *Research Policy*, 46(9), pp. 1570-1579.
- Kim D. H., & Kim J. K. (2017). The Effects of R&D Capability and Market Orientation on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 The Moderating Rol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rientation,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2(4), pp. 79-95
- Kim S. H., & Kim J. H. (2009). A IT Support policy for R&D competence : steel industry case,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4(4), pp. 143-152.
- Kim S. W. (2007). The Role of World Class Manufacturing Cap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Society*, 18(2), pp. 59-84.
- Knight, G. A., & Cavusgil, S. T. (1996). The Born Global Firm: A Challenge to Traditional Internationalization Theory, In S. T. Cavusgil, & T. K. Madsen, *Advances in International Marketing*, Vol. 8, pp. 11-26. New York, NY: JAI Press.
- Knight, G. A. and Cavusgil, S. T. (2004). Innovation, Organization Capabilities, and the Born-global Firm,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5(2), pp. 124-141.
- Kor, Y.Y. (2006). Direct and interaction

- effects of top management team and board compositions on R&D investment strategy. *Strat. Mgmt. J.*, 27, pp. 1081-1099.
- Kuemmerle, W. (2005). The Entrepreneur's Path to Global Expansion, *MIT Sloan Management Review*, 46(2), pp. 42-49.
- Lee, C., Lee, K., and Penning, J. M. (2001). Internal Capabilities, External Networks, and Performance: A Study on Technology-based Ventur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6/7), pp. 615-640.
- Lee Y., & Song E. (2019).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Funding on Venture Firms' Management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Firms' Internal Competencies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Firm's Growth Stag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2), pp. 31-46.
- Locke, E. A. & G. P. Latham (1991). A Theory of Goal Setting & Task Performa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2), pp. 480-483
- Luo, X., Slotegraaf, R. J., & Pan, X. (2006). Cross-functional "coopetition": The simultaneous role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within firms. *Journal of marketing*, 70(2), pp. 67-80.
- Mahoney, J. T., & Pandian, J. R.(1992). The Resource-Based View within the Conversation of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3(5), pp. 363-380.
- Morris, M., M. Schindehutte, and J. Allen (2005). The Entrepreneur's business model: Toward a unified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6), pp. 726-735
- Nam Y. H., & Park H. A. (2003). Empirical Examination on Characteristics of the Cross-Functional Integration of New-Product-Development Projects. *Korean Management Review*, 32(4), pp. 1063-1088.
- Nerkar, A. and S. Shane (2007). Determinants of invention commercialization: an empirical examination of academically sourced inventio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8, pp. 1155-1166.
- O'Regan, N., & Ghobadian, A. (2005). Innovation in SMEs: the impact of strategic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percep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54(2), pp. 81-97.
- Oviatt, B. M. and McDougall, P. P.(1994). Toward a Theory of International New Ventur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25 No.1, pp. 45-64.
- Oviatt, B. M. & McDougall, P. P. (1995). Global Start-ups: Entrepreneurs on a Worldwide Stag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9(2), pp. 30-44.
- Rhee Y. P. (2019). The Impacts of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y on Internationalization in Korean Venture Firm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019, 23(3), pp.179-200
- Richardson, P. R. and J. R .M. Gordon. (1980). Measuring Total Manufacturing Performance, *Sloan Management Review*, Winter, pp. 47-48.
- Sandberg, W. R., & Hofer, C. W. (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pp. 5-28.
- Schonberger, R. J. (1990). *Building a Chain of Customers*, Hutchinson, London.
- Seo C. J., Luo J. Y., & Lee S. H. (2008). Effects on Business Performance of Manufacturing Competency in Sawmill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n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Society*, 19(1), pp. 81-104.
- Shin J. K., & Im J. H. (2014). Industrial Cluster System, and Entrepreneurship, RandD Capabili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Es,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 Review*, 33(2), pp. 171-188.
- Slywotzky, A. J. (1997). Value migration: how to think several moves ahead of the competition. *Long Range Planning*, 2(30), pp. 314.
- Song, M., Podoyntsyna, K., van der Bij, H., and Halman, J.I.M. (2008). Success Factors in New Ventures: A Meta-analysis,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Vol. 25(1), pp. 7-27.
- Souitaris, V. (2002). Firm-specific Competencies Determin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 Survey in Greece, *R&D Management*, Vol.32, No.1, , pp. 61-77.
- Sun J. H., & Kim S. W. (2019). A Study on the Antecedents and Performanc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4(6), pp. 67-79
- Stewart, D. W., & Zhao, Q. (2000). Internet marketing, business models, and public policy.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19(2), pp. 287-296.
- Timmers, P. (1998). Business models for electronic markets. *Electronic markets*, 8(2), 3-8.
-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2019). *2019 Survey of Korea Venture Firm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Korea
- Wernerfelt, B. A. (1984). A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5(2), pp. 171-180.
- Yang Y. S., & Lee J. E. (2020).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and Learning Capability of SMEs on the International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novative Performance, *Korea Trade Review*, 45(2), pp. 87-102.
- Youn J. R., & Kim H. C. (2009). The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iation Strategy on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22(6), pp. 3693-3721.
- Zahra, S. A. and George, G. (2002). Absorptive Capacity : A Review, Reconceptualization, and Exten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2), pp. 185-203
- Zahra, S. A., Ireland, R. D. and Hitt, M. A. (2000). International Expansion by New Venture Firms: International Diversity, Mode of Market Entry, Technological Learning, and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3 No.5, pp. 925-950.
- Zahra, S.A., Matherne, B. P., and Carleton, J. M. (2003). Technological Resource Leveraging and the Internationalisation of New Ventures,”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Vol. 1(2), pp. 163-186.
- Zhang, Y., Li, H., Hitt, M. & Cui, G. (2007). R&D Intensity and International Joint Venture Performance on an Emerging Market: Moderating Effects of Market Focu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8(6), pp. 944-960.



김 효 정 (Hyojung Kim)

- 정회원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
-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전략/국제경영



최 원 용 (Wonyong Choi)

- 중신회원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
-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전략/국제경영